

청소년 건강 —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

김 문 실
(이대간호대학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청소년의 개념
 - 1. 청소년의 정의
 - 2. 청소년의 연령
- III. 한국 청소년의 특성
- IV.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태태생리 및 해결 방안
- V. 맺는말
- 참고 문헌

I. 머리말

청소년기는 이미 여러 학자수 독립에서 체계화하고 있듯이 인간의 생활 주기중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생활주기에서 “과도기”라함은 청소년이 때로는 아동의 성격을 띠면서도 때로는 성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특성도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 우리가 흔히 쓰는 과도기에는 이것이 경제적 과도기이든 문화적 과도기이든 또는 정치적 과도기이든, 이 기간에는 혼란과 진통이 있고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어딘가 보르케 혼란이 있고 진통을 겪어야 하며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간의 결여로 모든 면에서 양향성(兩向性)을 띠기 쉬워서 행위 자체가 때로는 아동과 같고 때로는 성인과 같을 뿐 아니라 이들을 대하는 학교, 가정, 사회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역할을 또다른 경우에는 성인의 역할, 즉 이중적 역할을 기대하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같이 양향성을 띤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ning)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발전이나 변화 속도가 완만했던 전 근대 사회에 비해 산업화, 도시화하는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때로는 간동,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청소년의 “문제”는 이들을 보는 기성세대의 관점에 따라 고질적인 질병으로 또는 하나의 파정으로 보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을 논할 때는 신체적, 지적 발달 특성은 물론 이들이 처한 사회, 가정, 학교의 측면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신체적, 정서적 측면은 자주 다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한국적 입장에서의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적 태태생리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Adolescence, Youth)이라 하면 Latin 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성장” 또는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년과 소년을 통칭한 즉 사춘기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에 속한 남녀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신체 발육정도나 정신적 성숙정도나 사회적 행동 양상면에서 볼 때 아직도 성숙화 및 사회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들의 최대 과업은 역시 건전하고 원만한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현대 청소년의 과업달성 과정을 현대사회 구조와 관련시켜 고려해 볼 때 전근대 사회의 청소년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사회구조나 생산체계가 별 까다로움 없던 전 근대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어서 청소년기에 대한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청소년 자신들도 무난히 성인기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Jean Duuignaud(1975)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이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사회가 급변하고 소용돌이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변화를 직접 체험해야만 하며 구조적인 역할기능 면에서도 까다로운 사회화의 학습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사회의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자극 받아서 심리적 행동상이 여러가지의 반응과 행동으로 표출된다.

둘째, 청소년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과정과 절차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므로 자연적으로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국가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고 때로는 소비자의 위치에 서 소비 경제의 성향을 따를 뿐 아니라 생산 경제의 인원으로써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문제나 상황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도나 복잡성이 다르기 날아지므로 청소년을 고려할 때는 이들의 심리적 신체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더 증

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청소년의 연령

Aristoteles (384—322 B.C)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를 7년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15세에서 21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다른기에서 볼 수 없는 자의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urlock(1949)는 대략 12세에서 21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으며 역시 3단계로 나누어 초기를 12세에서 14세, 중기를 15세에서 17세, 후기를 18세에서 21세로 설명하고 있다.

김(1985)은 흔히 사춘기라고 불리는 12, 3세에서 19, 20세까지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정(1983)은 한국의 경우 학생수는 1972년에 비해 1982년도에는 고교생이 2.5배, 대학생이 3.5배나 증가했음을 인용하여 실제로는 청소년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통과의식의 폭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은 주변인들의 신세를 오래져야 될 고 소의나 좌절감이 심하여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심각히 분석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반면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와같이 학습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잘 활용만 한다면 지적, 도덕적 및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서 그들의 인생관, 사회관, 직업관의 정확한 단안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1983)는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만 12세부터 성인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20세 전후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중고등 교육과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12세에서 22세까지를 보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86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 노동부(1983) 자료에 의하면 14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는 전체 노동자의 38,8%를 결하

특집 : 청소년 간호

고 있으며 남녀구성비는 남자가 32,7%, 여자가 67,3%이며, 아직까지는 청소년층 산업체에는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학교에는 남성이 많이 차지하는 추세이다.

이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들의 독립시기가 연장되므로 청소년의 연령이 길어져 12세에서 22세까지를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III. 한국 청소년의 특징

한국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처한 현대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는 급변한다고 하지만 이 급변의 지속은 인간의 질서, 가치관 및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을뿐 아니라 구조적 변혁으로 새롭게 형성된 상황에 적응해야만 하므로 인간에게 혼란과 갈등을 안겨준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인간에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발전” 자체에서 보다는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1983)는 청소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집단은 여러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집단이 있고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 집단이 있고 그리고 취학도 취업도 하지 않는 무소속 집단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집단별로 그 특성을 보아야 하나 전반적으로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불론 이점은 범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나 1976년 청소년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불만의 강도나 폭이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가장 좋은 환경에 속한다는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불만

도가 높다는 점은 양호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불만의 내용을 보면 학생집단은 지식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제도에 관해서 자기표현이나 욕구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점, 교사와 학생간 또는 부모와 학생간의 비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근로집단 청소년은 진학할 수 없다는데 대한 좌절감, 직업조건 및 복지문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 보건 간호원은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다스릴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근원적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자신의 장애나 학업에 대한 원망수준이 높다.

한국인은 배움을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 사상이나 부끄러워 지나친 교육열과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에 의해서 장애나 학업에 대한 조부수가 들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문화 및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보다 유희 및 오락을 즐기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서 청소년들은 전자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자연적으로 원망 격차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원망 수준은 사실상 불만 정도와 관련이 있어서 불만의 정도가 높을수록 원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셋째,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성인 의식을 갖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성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성인들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자신을 생각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이와같이 성인 의식 정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자신과 이들을 돌보는 성인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성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수한

의식을 갖고 있다.

즉 1) 비교적 문화 및 사회변동이 완만한 가운데서 성숙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이 현대 청소년에게는 그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적절한 역할 모델 구실을 못하고 있다.

2)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고 식민통치하에 성숙한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은 강한 엘리트주의적 자아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3) 기성세대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노출됨에 따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관념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도 행동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자기분열을 갖는다. 즉, 정신적 가치를 값지게 생각하면서도 물질생활의 중요성도 인식하며, 부모 형제간의 상호부조의 전통적 가족 윤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가족윤리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1969)은 이러한 점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지만 하나 한국 청소년들은 관념과 실제의 행동 사이의 간격이 유난히 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양항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아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대립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격지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를 개혁하면 된다는 권능감을 갖는 반면 자신의 무력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는 두 갈래의 마음을 갖게 된다.

IV.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병태생리

사회란 생활방식(사고방식, 행동양식)을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간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활방식이라 하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아 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배워서 표출된 일종의 양식 즉 문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는 중복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적 또는 의면적 행

위 양식이므로 이들의 지식, 태도, 가치, 신념 체계, 사고의 유형, 소망의사 표현을 위한 지적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현상이 곧 사회적 소산이며 사회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사회병리적 현상이라함은 이들의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함은 사회의 지배적, 또는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 이질적 문화를 내포한 것이므로 제시된 사회 병리적 현상이란 기성세대 수준에서 본 이질적 청소년 문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향적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문화라 하면 상징적인 POP문화, 긴미리, Unisex의 패션, 은어나 수화, 미팅과 같은 특이한 생활양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소년의 문화를 보는 관점은 단지 기성세대의 정통적인 문화에 비해 청소년의 것이 이질적인 특이한 양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Wold와 Gedo(198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을 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선진국(개발국)은 청소년의 문제를 성장과 정상의 문제로 보고 또한 이것이 많은 적들간에 젊은이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비행이나 문제행위 자폐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 과정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반면에 후진국은 청소년의 문제를 악성질병과 같은 고질적 병폐로 보고 쇠약시키고 낙관시키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본다. 따라서 지도대책도 기성세대의 도덕적, 교육적 차원에서 금지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실천력 없는 이론이나 토론만을 일삼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드려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전술했듯이 청소년기는 문제도 많고 투쟁과 격동도 많지만 이 길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끄는 기성세대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을 "이질

특집 : 청소년 간호

적"이고 "문제위주"만으로 보는 점에서 좀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좀더 높은 성숙에로의 가능성을 부각하는 시기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노출된 비행은 문제살기에 앞서 이들의 갈등이나 양립감정 즉 내면적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과거의 기성세대가 이끈 가정, 사회에서의 문제로 기인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현재 학년전 아동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써의 대책이 바람직하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기에만 겪는 특수한 경시적 문제이므로 이들로 하여금 이 시기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 학교, 사회에서 인도해야 한다.

넷째, 문제없는 청소년이기를 바라는 것보다 문제에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섯째, 간호원의 역할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양호교사, 지역사회 간호원 및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이 결과로 나타난 문제보다는 원인에 준한 인과론적 간호접근이 두텁게 시도되어야 한다.

V. 맺는말

일반적으로 청소년하면 12세에서 22세까지의 연령군을 의미한다.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사회 여러 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의 특성을 사회와 관련지어 볼 때 과거의 사회가 오늘의 청소년을 낳았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문제를 보는 기성세대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틀러 고질적인 악성 질병으로 보는 관점에서 파도기의 청소년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원 역시 신체적, 정서적 문제만을 보는 면에서 사회적 문제가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상자를 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본다.

참 고 문 헌

1. Erikson E. Youth; change & Challenge N.Y. Basic Books 1963.
2. Grinder R. Adolescence, John wiley & sons, N. Y. 1973.
3. 김태길, 청소년의 특성과 특성, 새시대의 청소년 상 심포지엄에서, 1981.
4. 김태길,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일조각, 서울, 1967.
5. 민영순, 발달심리학, 교육출판사, 1975.
6. 이상주, 기성세대와 청소년, 제 5회 복지사회 심포지엄에서, 1983.
7. 정범모, 현대 사회와 청소년, 제 5회 복지사회 심포지엄에서, 1983.
8. 정범모, 청소년 백서 1980~1984, 청소년대책위원회.